

대한간호정우회 초청 강연 연설

■ 변절과 배신의 역사를 청산하자!

제가 원대한 국가경영의 포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게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정치를 제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해서 고등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으면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할 때 제 꿈은 어디에 자그마한 별장을 하나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하면 그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시던 분이 하와이에 별장을 갖고 계셨어요, 어쨌면 그것이 그분을 비난하는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희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와이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골에 작은 별장하나를 갖고 싶다, 그것이 제 꿈이었었는데, 그만 어찌다 하다 보니까 요즘 말하는 386세대 그 사람들하고 어찌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꺾임에 빠져 가지고, 인권변론인가 뭔가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자꾸 수입이 떨어지더라고요, 수입은 자꾸 떨어

지고 그 사건을 거저 해주는 건 괜찮은데, 그런 사건을 자꾸 하고 다니니까 돈 되는 사건도 점차 점차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만 두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만둘 수 없는 어떤 분노라고 할까, 분노가 가슴에 쌓여 있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노를 이야기하면 또 여러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할까 싶어 다시 한마디 덧붙여야 겠네요. 분노는 있어야 합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삭이고 어떻게 승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분노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면 분노가 제겐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발들이고 두발들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저도 한때 짧게나마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오래 감옥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변호사 업무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왜 정치를 하는가 하고 지금 물으면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서 한국의 미래를 바꾸어 놓겠다. 또는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때문에 우리나라에 심각한 새로운 갈등이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를 열어서 우리 사회가 균형 되게 발전하게 하고 불균형으로 인한 증오와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든지, 우리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고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그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열심히 땀흘려 노력한 사람이 떳떳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등 많은 포부가 있습니다만, 그건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난 뒤에 생긴 포부이고 그 이전에 왜 정치했냐고 물으면 분노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오늘 그 대답을 바꾸겠습니다. 표현을 바꾸죠.

만일에 우리사회에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모자라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정치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

니다.

만일에 그들의 고통이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았았더라도 제가 정치를 하지는 았았을 것입니다. 그냥 조금씩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정치를(굳이 안 했을 것이다), 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 고통이 부당하고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부당하고 억울한 경우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 정치적 포부였고 그들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90년에 3당 합당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통일민주당에 60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54명이 전부 여당으로 일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변절이라 말했고 배신이라 말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넘어가 버리니까 국민들도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반대하더니 나중에는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9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역시 지역감정으로 치른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묻히고 지역감정만 남아 있고 그것이 투표결과를 결정해 버리면서 그 변절이라는 행위가 역사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당당하게 정권을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 저는 차마 믿지 았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가지 았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지 았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러나 진정 왜 안 갔을까, 부산 동구에서 허삼수씨하고 맞섰습니다. 8대2로 제가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시작하고 캠페인을 하니까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는 왜 군부독재의 피고인이 되었는데'라는 팜플렛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서 제가 변호를 하고 도와주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받는 박해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전부 다 얘기하였습니다.

글씨를 무식하게 깨알같이 썼습니다. 볼 사람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일이 안경을 챙겨 다니지 않는데 6페이지 짜리 팜플렛을 접어서 보냈는데, 인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시장, 산동네 시장의 좌판 놓고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손님 없는 시간에 잘 안보이니까 눈을 찡그리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마음에 와 닿네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자갈치에서 생선을 떼어다가 동네골목시장에서 파는 아주머니들이 함께 다닙니다. 새벽에 고기를 사다가 버스에 싣고 오는데 비린내가 나니까 욕을 먹지요, 그러나 차장도 서민이고 운전사도 서민이어서 툭툭거리면서도 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구박받으면서 먹고사는 아주머니들이 '노무현 이가 없는 사람 편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 입소문이 쭈욱 퍼지면서 8대2가 6대4로 되어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겼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그 당시에 소위 정경유착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정책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우리 서민들에게 얼마만큼 야박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을 버리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 갔습니다. 그 못 따라간 죄로 여기 와서 떨어지고 저기 가서 떨어지고 부산 가서는 배신자가 되고 해서 그렇게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못 먹고사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가망 없는 정치인으로 측은한 눈길을 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자유당후보 서모 씨와 무소속 후보 이모 씨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자유당후보가 이모 씨의 선거운동 화물차를 뺏어버립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차주에게 압력을 넣었겠지요, 그래서 이모 씨는 지계를 지고 다닙니다. 시장에서 지계를 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

십시오' 하고 다니니까 깡패가 와서 지계를 발로 차버립니다.

순경은 먼 산 처다 봅니다. 시장에 갔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집에 오셔서 아무 철없는 저를 앞에 놓고 '이 죽일 놈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무소속 이모후보가 이겼습니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민중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저의 어머니가 '에이, 더러운 놈, 떼가지고 개를 즐 놈이다' 뭘 떼다가 개를 주는지 아시지요, 그러면서 비분강개 하시더라고요. 이 무소속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뒤 자유당에 입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 뒤 선거에서 자유당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4.19가 일어났습니다. 야당 하다가 여당으로 간 마산의 허모 국회의원 집에는 불이 납니다. 이모 국회의원 집에는 데모군중들이 몰려가 불은 안 질렀지만 장독을 깨버렸습니다. 그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표정이 산더미 같은 장독이 깨져서 간장이 흐르는데 '거기에 배 띄워도 되겠다' 사람들이 처다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빠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억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기억이, 그 이후에도 저는 외로운 길을 여러 번 걸었습니다.

'98년에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그 2년 뒤에 제가 종로에 그대로 있었으면 제가 당선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냐, 증오와 분노로써 표를 얻으면 안됩니다.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분노와 불신과 증오심을 심어주면, 표를 주고 난 그 사람 마음에 증오와 적대의 감정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사회를 파괴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2000년 4월13일 떨어진 그날 저녁에 이미 출구조사 결과는 체계 불리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

이 링컨 대통령의 연설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40일전에 두 번째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민들에게 한 연설인데, 이 연설문에는 '우리는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불의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야쵸,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설에는 단 한 줄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얘기는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상대방을 응징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느 쪽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기도를 들어주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이긴 전쟁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편을 들었다는 교만함이 없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안한 전쟁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전쟁으로 고통을 받은 많은 국민들, 남편을 잃고 울부짖는 많은 미망인들 그 아이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줄 것이냐를 함께 걱정합시다' 이제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그 연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1865년입니다. 약 140년 전이죠, 정말 위대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때만큼 우리한국의 역사가 초라하게 느껴진 때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의가 깃발을 잡았던 사람이 다 좌절했던 역사입니다. 아니면 역사를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역사에서 소위 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현실정치에서 다 패배하였습니다. 전 제가 정의라고 다른 사람들이 불의라고 감히 말할 용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념이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술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는 저', '그렇게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라는 지적은 받았지만, '너 가는 길이 옳지 않아' 라는 지적은 받

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설사 외롭더라도 옳은 길이 승리하는 역사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